

“조금 느릴 뿐 할 수 있어요” 장애인 평생학습놀이터 진행

사하구는 지난 7월 ‘2018년 다름의 동행-장애인 평생학습놀이터’를 진행했다. 평생학습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 소속 동아리 중 말그미, 리센 토탈공예, 아름다운손, 종이비행기 등 6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이들 동아리는 네킨아트를 활용한 부채 만들기, 천연 수딩겔 만들기와 교구 활용으로 인지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게임 등 다양한 내용의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7월 19일 가온누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별달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강좌가 열렸다. 말그미 이혜진 회장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마다 집을 정하면 정리가 쉽다고 말했다. 사용한 후 물건을 그 집에 넣어두면 정리 정돈이 되고 수납도 된다며 수업을 진행했다. 수건과 양말 개는 법을 실습하기도 했다. 자신이 갠 양말에 막대를 꽂고 포장지로 감싼 후에 예쁜 리본으로 장식해서 받는 선물을 모두 즐거워했다.

김영신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만들기 수업은 마련했지만 정리수납은 처음이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더 좋았다고 말했다.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하다보면 집중력도 높아질 거라고 믿는다. 앞으로 사하구가 장애인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싶다.”고 마음을 전했다.

토탈공예 강은정 회장은 행복나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천연 수딩겔 만들기를 했다. 천연 수딩겔을 만드는 동안 향을 맡고 느낌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강 회장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기 때문에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지원받은 재료 비보다 더 많이 쓰게 되지만 어디든 원하는 곳이면 기꺼이 달려갈 마음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2018년 다름의 동행-장애인 평생학습놀이터가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가 재능기부로 사회 환원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의 봉사에도 박수를 보낸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사하역사학교 9월 29일 개강 역사고우니와 함께하는 사하역사 배우기



사하구가 야심 차게 준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하역사학교가 9월 29일 문을 연다.

사하역사학교는 학교(초등학교 3학년 이상)와 가족대상으로 진행된다.

사하역사학교는 2017년 3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역사고우니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중 선발된 7명이 사하역사해설사인 역사고우니로 활동한다. 역사고우니는 탐방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사하구 내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체험에 적합한 곳을 직접 찾았다. 지역의 숨겨진 옛 이야기를 공부하며 코스 개발을 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상별 해설시연을 하며 각 코스를 수정, 보완하였다. 그 결과 물운대(물운대 시비, 다대포객사, 정운각), 윤공단(윤공단, 한광국구 폐불망비, 다대진성), 아미산(은봉 봉수대, 아미산 전망대, 삼각주와 14개 모래등) 을숙도(낙동강 물문화관, 철새도래지, 쓰레기매립지, 분뇨처

리장) 총 4개의 코스를 개발해 운영한다.

역사고우니 김나미(55세·당리동) 씨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시연했을 때 우리동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다”라는 말을 듣고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사하역사학교는 아이들 대상으로 시작하지만 어른들에게 한국사와 지역 역사를 연결해 해설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비쳤다. 선선한 가을 새로 시작하는 사하역사학교를 통해 우리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 사하역사학교·자연학교 가족대상 운영일정

월 별	역사학교	자연학교
9월	.	물운대 : 15, 29일
10월	20일	물운대 : 6, 13, 20, 27일 승학산 : 6, 27일
11월	17일	물운대 : 3, 10일 승학산 : 10일
신청	8. 29 부터	8. 28 부터
		사하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는 별도 일정 운영(전화문의)
문의 : 역사학교 220-4118 / 자연학교 220-4804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hanmail.net

사하구 곳곳에 다양한 하반기 강좌 열려

사하구 평생학습관은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격증 취득, 취·창업, 인문교양,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총 23개 강좌에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먼저 음식을 이용한 강좌가 눈에 띈다. 아이들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아동요리지도사’, 푸드트럭 레시피를 배워보는 ‘푸드트럭 창업반’, 아이와 함께 오감 체험활동으로 소통하는 ‘온가족! 푸드아트 테라피’이다. 또한 다양한 공예를 배워볼 수 있는 ‘시니어 조이아트 지도사’, ‘뚝딱! 아빠랑 목공예교실’, ‘토탈캘리공예’ 강좌를 새롭게 개설한다.

동매누리 행복센터를 포함한 4곳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규학습자는 8월 8일부터, 기존학습자는 8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생학습관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니 관심있는 분은 서둘러야 한다. 평생학습빌리지사업은 해당 접수처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 평생학습관 220-4117~8

강경화 평생학습 구민기자
wy0823@naver.com

■ 평생학습관 하반기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인원	운영기간	시간
그림책놀이지도사	20	9. 3~11.26.(월)	10:00~12:00
아동요리지도사	20	9. 6~10.25.(목)	10:00~13:00
스포츠스태킹지도사	30	10. 2~10.30.(화,금)	10:00~12:00
탈무드영재창의지도사	20	9. 6~11.22.(목)	10:00~12:00
코딩지도사	20	9.10~12. 3.(월)	19:00~21:00
시니어조이아트지도사	20	9. 3~11. 5.(월)	10:00~13:00
푸드트럭 창업반	30	9.12~12.12.(수)	10:00~12:00
홈서비스 자격과정	30	10.16~11.21.(화,수)	10:00~13:00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	40	9.27~12.13.(목)	14:00~16:00
구민안전체험교실	20	9.13.(목)	10:00~12:00
영화로 만나는 4차 산업혁명	30	10. 1~11. 5.(월)	19:00~21:00
클래식이 들려주는 인생	30	9. 6~10.11.(목)	19:00~21:00
걸어서 세계속으로	30	9. 3~11.26.(월)	19:00~21:00
그렇다면 당신은 중년입니다	50	10. 2~10.30.(화)	14:00~16:00
낙동강가의 역사와 기억이야기	50	9. 5~10.17.(수)	10:00~12:00
비엔날레 돌보기(현대미술학)	30	9. 6~11. 8.(목)	19:30~21:00
도시농부!	20	10. 2~12.11.(화)	10:20~12:10
베란다 텃밭 가꾸기	20	11. 3~11.24.(토)	10:00~12:00
온가족! 푸드아트 테라피	20	9.29~10.20.(토)	10:00~12:00
뚝딱! 아빠랑 목공예교실	20	9. 7~10.23.(화,금)	10:00~12:00
어른들의 가죽공예	20	9. 6~10.25.(목)	19:00~21:00
토탈 캘리공예	20	9. 6~10.25.(목)	19:00~21:00
스토리가 있는 연필소묘	20	9. 3~11.26.(월)	10:00~11:30

■ 평생학습빌리지사업 프로그램

접수처	프로그램명	기간	시간	운영장소
교정3동 행정복지센터 ☎ 220-5066	환경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	8.27~10.22.(월)	10:00~12:00	교정3동 행정복지센터
	정리수납전문가 2급	8.28~11.13.(화)	10:00~12:00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 220-5212	환경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	8.28~10.30.(화)	10:00~12:00	동매누리 행복센터
	행복이 피아나는 업사이클 골목길	8.24~10.26.(금)	10:00~12:00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 220-5272	환경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	8.28~10.30.(화)	14:00~16:00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내손안에, 마을 디자인 (마을로고 만들기)	8.28~10.30.(화)	10:00~12:00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 220-5302	환경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	8.30~10.18.(목)	14:00~16:00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뚝딱뚝딱 마을 목공예	8.29~11.14.(수)	10:00~12:00	

제84회 사하아카데미 개최

[일시] 2018. 9. 19.(수) 오후 3시

[장소] 사하구청 대강당

[주제]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

[강사] 최열(전 환경재단이사장, 현 환경운동연합 고문)

신입기자 탐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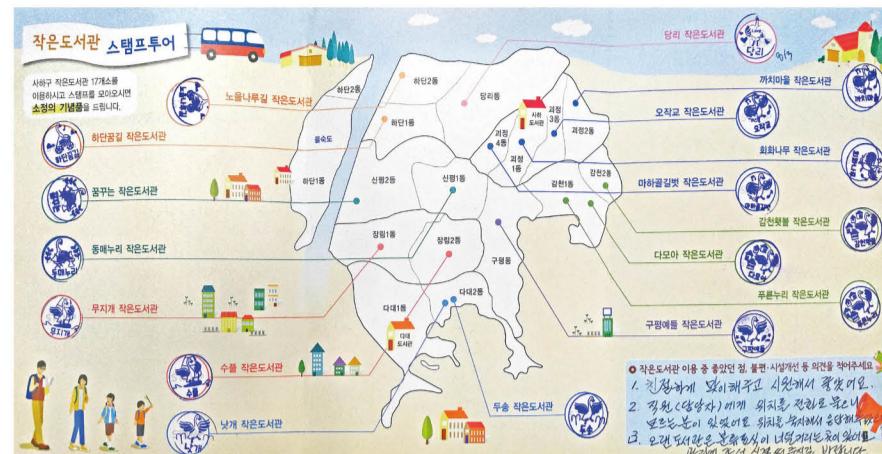
작은도서관 스템프투어로 시원한 여름나기

찌는 듯한 삼복더위이다. 냉방 잘 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은 어떨까. 사하구는 관내 17개 작은도서관을 알리고 이용을 권하기 위해 스템프투어를 6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실시하였다. 작은도서관 스템프투어를 완주하고 리플릿에 도장을 모두 찍으면 기념품도 증정하는 행사여서 관심이 높았다.

사하배움마당 신입기자 5명은 작은도서관 스템프투어를 시작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신평2동 꿈꾸는 작은도서관으로 향하였다. 도시철도 신평역 건너편 노인복지회관 건물 4층 계단을 올라 문을 여니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하며 스템프 투어 리플릿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힌 노트를 받은 초등학생의 기쁨이 이런 것일까.

작은도서관 중 유일하게 지하인 다대2동 두송 작은도서관은 짙은 벽면에 선 책장이 책 숲을 연상케 했다. 가운데 낮은 책장들 사이로 시야가 열려 있어 조용하고 시원했다. 에어컨과 환풍기로 습기나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배려했다.

한 곳 두 곳 스템프가 늘어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걸어서 몇 분 거리의



다대2동 낮개 작은도서관으로 향하였다. 길 양편으로 줄을 선 나무 사이를 산책하듯 지나니 꽃이 활짝 핀 예쁜 화단을 앞에 둔 작은 궁전 같았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과 함께하는 계단형 열람석이 특이했다. 머리를 숙이며 들어간 1.5층 어린이 열람실에 어린이들이 벽에 마련된 육각형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2층 열람실에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책읽기에 몰두해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여 말 불이기가 조심스러웠다. 1층에서 만난 김보혁(8세) 어린이는 “학교보다 좋아요. 가깝고 조용하고

읽을 책들도 더 많아요. 에어컨도 빽빽해요.” 하면서도 만화책 넘기느라 눈을 떼지 않았다.

신입기자가 찾아간 작은도서관들은 안내와 접수, 육체권에서 일만이 천여권 장서를 진열한 서가와 열람실, 학습실(강의실)을 갖추고 있었다. 열람실은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공동육아 나눔터나 장난감 도서관 등 도서관별로 특성과 특화된 기능도 보였다. 최근 문을 연 구평예들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열람증으로 16개 작은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꿈이룸방, 꿈나눔방과 같은 이름도 꿈을 이루고 나눌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좋았다. 작은도서관 투어 행사 중에도 리플릿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었고 서가 분류표식이 바르게 부착되지 않고 너털거리는 모습도 보여 좀 더 알뜰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주는 곳도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책만 보는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유아와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고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도 진행하므로 자신과 자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

도서관이지만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공간,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동네회관 같은 곳, 배움과 소통 그리고 편안함이 함께 하는 장소, 이것이 작은도서관의 모습이었다. 다음 방문 할 작은도서관의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걸어 나오는 발길에 무뎌지는 어디로 갔는지 시원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다.

박강균 평생학습 구민기자
alberto1@hanmail.net

공동취재단 = 김미연·김미영·김필분·천종숙

“무엇이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재능기부 특강 3D펜으로 만들기

사하구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에 소속된 ‘모던아트’ 회원들이 여름방학 재능기부 특강을 했다. 지난 7월 회원들이 진행한 ‘3D펜으로 드림캐쳐 만들기’는 방학을 맞아 참석한 초등학생들의 호응이 무척 좋았다. 강사로 나선 이은혜 (33세·신평동) 씨는 “3D펜만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3D펜은 생각과 상상을 입체로 표현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수업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3D펜의 원리를 설명한 후 드림캐쳐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드림캐쳐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만든 장식품으로 나쁜 꿈은 그물에 걸려 아침 햇살과 함께 사라지고 좋은 꿈만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D펜은 굵은 볼펜 같이 생겼다.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만 잘 지키면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회원들은 먼저 준비해 온 도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모여 앉은 아이들은 3D펜에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필라멘트를 투입 구에 끼웠다. 필라멘트는 열에 의해 녹는데 속도를 조절하면서 3D펜으로 도안을 따라 그린다. 저마다 특색 있고 개성 있는 드림캐쳐가 탄생했다. 아이들은 작품이 완성되자 탄성을 지르며 좋았던 것이다. 3D펜

의 마력은 두 시간 동안 아이들을 꼼짝하지 않고 작품 만들기에 몰입하게 했다. 수강생 이태수 (10세·구평동) 어린이는 “엄마가 시켜서 웃지만 직접 만들어 보니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어요.”라고 웃는다.

3D펜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장난감, 예술작품, 과학, 의학 등 응용 할 분야가 너무 많다. 요즘은 인체에 무해한 재료가 나오니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수업에 참여한 모던아트 회원들은 3D펜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웠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여름특강으로 만난 세계휴양지

영화로 떠나는 유럽여행

여름특강으로 ‘미리 만나는 세계휴양지 TOP4-유럽편’이 진행되었다. 한낮의 무더위가 밤까지 계속된 7월의 날씨 속에도 유럽에 대한 관심으로 늦은 시간에도 수강생들이 가득했다.

프랑스 영화와 휴양지, 이탈리아 영화와 문화, 그리스 영화와 여행수칙에 이어 마지막은 스페인의 영화와 문화였다. 스페인 투우 전통과 유명 관광지, 가우디의 건축물을 시작으로 스페인의 다양한 음식들도 만나고 스페인 국민감독 영화

‘그녀에게’를 보았다. 영화 중간마다 스페인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음악, 예술, 정서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다. 감독의 작품에 나온 실제 주인공들을 초대해 가수의 정원에서 열린 콘서트 장면, 발레 교수가 실제 칠리채플린의 딸이라는 것도 영화 속 숨은 재미였다. 사람을 아는 것이 그 나라를 아는 것이라는 강사의 마무리로 4회의 수업이 끝났다.

수강생 김영진(49세, 다대1동) 씨는 아직 가보지 못한 유럽을 여행하고 싶은 편 안한 마음으로 여행사진과 정보의 수업을 기대했다고 한다. 영화와 함께하며 평소에 여행영화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수업을 계기로 관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나온 영화들을 다시 한 번 보고 싶

다고 했다. 영화 ‘일포스티노’가 가장 기억에 남고 실제 배우의 뒷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고 했다. 서양미술사 수업을 들었는데 영화로 세계를 보는 수업을 통해 배움에는 끌이 없음을 느꼈다고 했다.

수강생 석정순(51세, 당리동) 씨는 아파트 벽보 안내문을 보고 사하구평생학습관 수업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직장인이라 가까운 외국은 2박 3일로 여행을 갔지만 유럽은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퇴직 후 유럽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첫 수업 후 프랑스 영화를 관람했고 외국영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안성희 강사는 한국인이 많이 가는 4개의 유럽 여행지를 배경으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를 선정해서 강의했다. 안 강사는 “영화는 주변의 사고방식과 환경을 담아 사람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미디어다.”라고 말했다. 영화 속에는 그 나라의 거리, 건축물들이 담겨 있는데 감독이 의도적으로 넣는 것도 많다고 한다.

알고 보고 알고 가면 더욱 풍부한 여행이 되는 만큼 이번 수업을 통해 유럽에 대한 관심을 느낀 시간이었으면 한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숨은 리더

사하마을 진로주치의 이승민 씨



진로를 탐색하고 적성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육아교육, 일자리, 거주, 문화예술, 도시농업, 친환경 에너지까지 마을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이 나서고 행정이 지원한다. 특히 사하구는 다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 마을 공동체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 이승민(47세·하단동) 씨를 만났다. 이승민 씨는 우연히 마을 공동체의 공동육아 활동을 접하고 주변의 학부모들과 함께 하루마을문화교실을 제안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복잡한 도시생활도 이웃과 함께 한다면 아이에게 행복한 미래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이승민 씨다.

이승민 씨는 사하마을 진로주치의다. 사하마을 진로주치의는 부산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15시간



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주민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주로 청소년의 진로상담을 한다. 진로독서 코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흥미, 적성, 가치를 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승민 씨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잘 준비하여 성장하는 것이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자료를 만든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이동은 군은 “아빠는 정말 착해요. 제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 그는 집에서는 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주는 자상한 아빠이기도 하다.

이승민 씨는 직업상담사이기도 하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직업상담사 전문 자격증을 따게 되었다. 또한 역량강화를 하고 스터디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아직 꿈’이라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하구 평생학습 동아리 성과 공유회, 평가회, 여름방학 특강 재능기부 등으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승민 씨는 올해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공모해 지원금을 받아 사하마을 진로주치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주민교사들과 청소년을 위한 여름캠프를 열었다. 8월 6일부터 3일간 열린 여름 캠프는 사하구 주민들이 직접 청소년을 만나 소통하고 상담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승민 씨는 주민교사가 강의하고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소년을 모집하고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일도 직접 했다. 평가회의를 거쳐 사전 사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한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흥미, 적성, 가치, 이해가 높아질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진로상담이 지속적으로 학교와 사하구의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아리 회원 박미옥 (56세·괴정1동) 씨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주치의가 꼭 필요한 만큼 바른 교육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이승민 씨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빠이고 선생님이며 활동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무더위도 잊게 하는 타로

감천1동 행복센터 타로 심리 자격증과정



푹푹 찌는 찜통더위도 날려버리고 있는 감천1동 행복센터의 ‘타로 심리 자격증과정’ 강좌를 찾았다. 무더운 오후 시간이지만 뜻 하나라도 놓칠세라 강사의 말을 듣고 필기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은 더위도 잊고 있었다. 눈빛마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사하구 평생학습 감천1동 행복센터는 타로 강좌가 현수막을 걸기도 전에 조기 마감되어서 인기강좌인 것을 실감했다고 한다.

타로는 이집트 문자에서 유래했는데 길과 왕을 합쳐서 왕으로의 길을 뜻한다. 타로는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마이너 아르카나 5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로 자격증과정 수강생들은 자기의 생일을 양력으로 더하고 더해서 숫자가 나오면 뜻풀이도 해보고 성격의 유형도 알아가면서

흥미롭고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간은 어려운 단어들과 그림들이 신비롭기도 했다.

김차은 강사는 타로는 자아인식을 도와 마음의 평온을 돋고 스스로를 코칭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을 인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갈등이 많은 요즘 소통을 돋고 함께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거울이 타로라고 덧붙였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가까운 곳에서 타로 심리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는 것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는 조춘선(58) 씨는 하는 일이 여르신들을 매일 방문하는 일이라 어르신들과 대화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듣고 있다고 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나를 알고 싶고 상대방과도 소통도 잘하고 싶다고 했다. 3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도 따서 많은 연습과 현장에서의 봉사를 통해서 취미 생활은 물론,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멋진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 한다. 이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본다.

안옥순 평생학습 구민기자
an5035@hanmail.net

가까워서 더 좋은 동네방네 학습관

사하구 특색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동네방네 학습관에서는 주로 동아리 활동이나 배달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25개 동네방네 학습관 중 특별히 운영 실적이 우수한 학습관에는 사하구가 특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실제로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네방네 학습관 특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이 다양하게 준비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형설모두학교(6호점)와 동아기획(16호점)에서는 60세 이상의 장년과 장애인을 위해 토탈공예 수업을 하였다.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타(4호점)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영유아 체험놀이를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사하구민을 대상으로 ‘홈 인테리어’와 ‘의류 실크스크린’ ‘색채 심리’와 ‘웃음 치유’ ‘핸드드립 바리스타’ 등의 프로그램이 여러 학습관에서 열렸다.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18호점)에서 열린 핸드드립 바리스타 교실은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커피를 좋아하는 수강생 12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에 임하였다. 4회에 걸쳐 진행된 이 수업은 대기가 넘칠 정도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모두 커피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로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열심히 수강하였다. 박진희 강사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핸드드립 방법을 가르쳤다.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커피를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설로는 거의 완벽하다고 말하면서 동네방네 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좋은 시설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4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쉬워요. 계속해서 자격증반도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수강생 장혜정(32세·다대동) 씨는 평생학습 밴드 활동과 사하구보, 사하배움마당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고 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주 참여하고 있지만 집에서 가까운 동네방네 학습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나니 더 좋았다고 덧붙였다.

동네방네 학습관은 시설과 공간을 주민에게 대여하고, 사하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습장이기도 하다. 동아리 모임이나 체험활동, 재능기부 활동을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더 없이 좋은 제도이다. 모이고 배울 공간이 필요한 사하구민이라면 누구나 동네방네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으니 현황을 참고해 이용해 보면 좋겠다.

문의 : 평생학습과 220-4806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꼬마책토리'의 아이사랑 책사랑

'꼬마책토리'는 책놀이 지도사 동아리이다. 꼬마책토리는 작은 도토리가 큰나무가 되듯 책을 통해 아이들이 무한한 잠재력의 쌍을 토우길 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회원들의 인연은 다대도서관에서 뜨레풀 책놀이 지도사 강좌를 수강하면서 이어졌다. 회원들은 1,2,3급 자격증을 따고 2016년 사하구에 동아리 등록을 했다.

회원들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물운 대복지관에 모여 신간 도서를 읽고 돌아가며 발표를 한다. 또 책놀이 창작 수업을 구상하며 공유한다. 회원들은 독서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동화구연 등의 자격증도 취득하여 책놀이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회원들은 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에서 재능기부를 하면서 강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회원 8명이 돌아가면서 주강사로 진행하고 시간이 맞는 회원이 보조 강사와 사진촬영 역할을 한다. 서로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격려하고 조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회원들은 2년차 동아리이지만 부산에서 책놀이 지도사로 수업하기는 처음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난 7월 꼬마책토리는 다대도서관에서 '고녀석 맛있겠다'는 책으로 책놀이 수업을 진행했다.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은 수수께끼로 공룡을 유추하여 흥미를 유발했다. 강사는 아기공룡이 부모



를 찾아가는 장면에서 씩씩한 아기공룡이 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빽빽이 양발로 터트리기, 격파왕 신문지 자르기, 큰소리 지르기였다. 아이들은 금방 용감하고 씩씩해져서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잘했다.

꼬마책토리의 책놀이수업은 동화구연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동적활동도 고려하고 생각도 끌어내는 등 놀이와 책읽기가 잘 어여져 아이들의 호응이 돋보였다. 그날의 주강사인 전옥행(44세·다대동) 회장은 "아이들은 수업시간 내내 적극적이고 공룡의 외모, 생김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룡들의 감정까지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흐뭇해했다. 꾸준히 책놀이 수업에 참여

하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책을 읽으니 기억에 오래 남고 재미 있어 한다."고 만족해했다. 내 아이를 잘 키우려는 마음으로 시작해 이웃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전 회장은 "비온 뒤 풀이 쑥쑥 올라오는 것처럼 책 읽는 아이들이 조금씩 집중하고 뭔가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 무척 즐겁다."라며 수업을 계속 찾는 학부모와 아이를 볼 때 사명감도 느낀다고 했다. 박희정(38세·신평동) 총무는 책놀이를 배우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더 변했다고 말했다. 첫 수업에 진땀을 흘리며 긴장했으나 지금은 아이들과 눈 맞춤을 하고 호흡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긍정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꼬마책토리는 다대도서관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가나다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한다. 9월부터 천사의 학교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4세 이상 유치원 어린이 대상으로 수업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교구 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가 있는 부모라면 특별한 책놀이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겠다. 내 아이를 키우듯 아이사랑을 책으로 이끌어내는 꼬마책토리의 활약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3259@hanmail.net

여성 취업과 창업을 돋는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돋기 위해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진로상담과 취업 알선, 사후관리, 사회문화교육,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괴정동 KT 별관 3층에 사무실, 취·창업 상담실, 조리실, 정보화실, 강당 등을 갖추고 있다.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와 강연회를 개최한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설 프로그램은 일반유료과정, 특강, 무료과정과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이 있는데, 유료 강좌가 많다.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국비지원 교육인 '지역여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3S(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창업가 양성과정'과 '세무·회계 사무원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지역여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3S 창업가 양성과정은 특화된 사업으로 전국 최초 여성 예비창업가를 위한 교육이다.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송

민재 관장은 "국비지원을 통해 배출된 16명의 예비 여성창업가들이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 특화된 사업을 펼쳐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과정인 '창직·진로지도사 양성과정'은 8월 27일 개강하고, '밑반찬 조리전문가 양성과정'은 9월 3일 개강한다. 참여를 원하면 방문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201-2214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제2기 사하배움마당 구민기자 발대식

사하배움마당' 제2기 평생학습 구민기자단 발대식이 지난 7월 10일 사하구청에서 열렸다. 박준우 부구청장과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발대식에는 1기 구민기자 11명과 신임기자 5명이 함께했다. 박 부구청장은 "기자들이 평생학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학습 홍보를 위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 위쪽 : 김미연 김미영 김필분 박강균 천종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신임기자는 구민기자 양성과정으로 신문제작 전반을 익혔다. 수업과정과 참가신청서 등 심사과정을 거쳐 2기 구민기자로 선발되었다. 청일점인 박강균 신임기자는 "평생학습을 알리는 일에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숙 1기 기자는 "신임기자들이 보강되어 힘이나고 든든하다."고 환영했다.

'사하배움마당'은 구민기자가 만드는 사하구 평생학습 신문이다. 사하배움마당은 2015년 겨울 창간준비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호를 발행했다. 매회 6천부를 발행하여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다대도서관, 사하도서관, 복지관, 기타 유관기관에서 배부하고 있다. 종이 신문뿐 아니라 사하구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사하배움마당을 만날 수 있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교육콘텐츠 모집 중

마을과 학교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만났다. 사하다행복 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등이면 된다. 동네방네 학습관 같은 마을기관에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 가능하다.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체육, 창의체험, 독서토론, 인성, 진로활동 등 아이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단 국어, 영어, 수학 등과 같이 입시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신청이 안 된다.

사하다행복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aha.go.kr/happyedu>) 또는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면 된다. 단체나 개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는 컨텐츠 2개 까지 응모 가능하고 총 12회 차 이하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선정된 교육 콘텐츠는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사하구의 초중고에 보급할 예정이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지는 학교와 개별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접수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10월 29일 최종 발표한다.

문의 : 사하다행복 교육지원센터 220-4936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